



농협 남원시지부, 영농지원단 발대식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일손돕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위한 범농협 합동 영농지원 발대식 및 농촌일손돕기를 최근 남원시 산동면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농신보남원권역보증센터(센터장 이성로)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일손돕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와 남원시 산동면 취약계층 농장을 찾아 사과 적화작업 및 마을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박기열 조합장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 극복을 위해 유상 농촌인력 증개뿐 아니라 무상 농촌인력 증개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박물관 직원들, 발전기금 기부

전주대학교 박물관 직원들이 개교 60주년 기념 및 학교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대학 본관 4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박진배 총장과 박물관 박현수 실장, 육창민, 박은지, 신준호, 강은서, 안정수 학예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3,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발전기금을 전달한 박물관 직원들은 그동안 학술연구 및 위탁교육, 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으로 모인 작은 정성을 학교와 박물관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마련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도동동 지사협,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위원장 서덕교)는 지난달 30일 관내 오유민 동태마을(대표 전도현) 식당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정액 (월 3만 원 이상)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올해 7번째로 동참했다.

서덕교 위원장은 "후원반은 기부금은 소의 계층을 위한 지역복지 특화사업에 잘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강면 지사협, 착한가게 현판 기증

남원시 대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중표,권기환)는 지난달 30일 약수식당(대표:이정희)에 '착한가게' 1호점 현판을 기증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 문화 사업이다.

이정희 대표는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렇게 실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역의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골든 버저 받으며 영국 매료시켜

전주대 태권도 시범단, '브리튼스 갓 탤런트' 참가... 준결승 진출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가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 season 17)에 참가, 골든 버저를 받아 세미파이널(준결승)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브리튼스 갓 탤런트 프로그램은 폴 포츠, 수잔 보일 등과 같은 대형 스타를 낳은 세계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이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갓 탤런트에 참가하여 큰 화제 속에서 골든 버저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단일 대학 태권도 시범단이 해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 골든 버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싸울아비'팀은 4분기량 시간 동안 화려한 고난도 격파와 깃발 퍼포먼스, 강인한 창작 품새를 조화롭게 선보이며 심사위원과 현지 언론 등 영국 전역을 매료시켰다.

사이먼 코렐, 아만다 홀든, 알레사 디슨, 브루노 토니올로 등 심사위원은 "오늘의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쏟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이 쇼에서 본 무대 중 최고였다"고 평을 전했다.

특히 까다로운 심사평을 하기로 유명한 사이먼 코렐



은 10점 만점에 11점짜리 공연이었다며, 한국을 대표해 멋진 공연을 보여준 것에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이날 싸울아비팀의 공연 주제인 무혼(武魂)은 과거 활, 창, 칼을 자유롭게 사용했던 동양 무인들의 근본이 오늘날 태권도정신으로 계승된 것임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을 기획한 이수경 교수는 "실제 전주시는 실전 태권도의 원류지"라며 "원류지인만큼 첫 작품은 태권도의 우수성을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농협, '2023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수상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중)은 최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치러진 '2023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사무소 부문에서 2개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개인부문에서는 7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사무소부문에서는 그룹별 우수상과 더불어 개인수상자 5명 이상을 배출한 사무소에게만 주는 공로상도 받게 되었다.

특히 '전국 최초로 7명의 개인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다.

개인부문에서는 △금상 임미정(본점), △은상 유정미(본점), △우수상 이선정(군상지점), 양세리(동향지점), 유정옥(마령지점), 김희권(본점), △헤어리상 양옥자(마령지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문중 조합장은 "작년 한 해 진안농협이 조합원들과 고객을 생각하고 노력하여 얻은 값진 결과이며, 개인수상자 7



명을 배출한 것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북여성정책연구소, 지역 맞춤형 여성·가족 정책 연구 시동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이 지역 맞춤형 여성·가족 정책 연구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르면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유은경)가 지역 수요를 반영한 4개 기본과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수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첫번째 연구과제로 소규모사업장 일·생활균형 실태 및 개선방안이다.

전북지역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높아 일·생활 균형 정책 실행이 어려운 여건인 만큼, 지역 상황에 맞는 일·생활균형 실태를 파악,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여성 폭력 방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구획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한다.

다문화가족의 장기 정착화를 고려한 초기 결혼이민자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북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시·군별 다문화가족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의 실태를 반영한 중장기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특정분야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2차 청년기본계획(2023~2027)' 및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전북지역의 청년지원정책을 젠더관점에서 분석하고, 성별·연령별 정책 수요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성평등한 청년기본계획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박차'

정읍시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 보건소는 사업장,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 안내하는 '찾아가는 혈관지킴이 건강부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건강부스는 경제활동은 활발하지만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3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과 운동 부족으로 우리나라 30~40대 고혈압, 당뇨병 인지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젊은 층의 만성질환 관리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김제시, 취학 전 1000원 읽기 여는 날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달 30일 김제시립도서관에서 유아 교육기관과 함께하는 취학 전 1,000원 읽기 여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성주 김제시장과 해당 유아 교육기관 원장, 선생님 그리고 주인공인 5~7세

유아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학 전 1,000원 읽기 여는 날'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는 운영기관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정 시장이 네기분은 무슨 색깔이니? / 최숙희 저 그림책 읽어주기를 진행했으며 '책먹는 여우'를 비롯한 어린이 인형극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취학 전 1,000원 읽기 사업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 지역 사회 책 읽기 운동으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북스타트에 이어 5~7세 유아를 위한 독서 생활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제=곽도태 기자



무주 체조팀 반디걸스, 전국체육대회 3위 입상

무주군체육회(회장 송재호) 소속 생활체조팀 반디걸스(21명)가 지난 28일 울산 현대중공업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전국생활체육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 3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반디걸스는 각 시·도 대표 14개 생활체조팀들이 참가한 생활건강체조 분야(59세 이하)에서 탁월한 구성(창의성)력과 실시(안정성) 능력을 담은 군무를 선보여 호평을 얻었다.

대한체육회·울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종목단체·울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무주군체육회 임원 등 20여 명의 응원단도 함께해 입상의 의미를 더했다.

반디걸스 이세희 대표는 "무주군민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했다는 것도 자랑스러운 데 좋은 결과까지 안게 돼 더 기쁘다"라며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매진했던 팀원들, 그리고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여성단체협의회, 제철 딸기잼 만들어 판매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난 달 29일과 30일 시 평생학습관에서 제철 딸기 1,000kg으로 잼을 만들어 판매했다.

수제 딸기잼 판매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익금 일부는 관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영희 여성단체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서로 나누며 봉사하는 마음이 우리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 화합이 가득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해리농협,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은 지난달 30일 상하면 실내체육관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해리농협 임직원과 상하지점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지역 농산물을 정성스럽게 만든 햇감치와 불고기 반찬을 고령 농업인과 취약계층 80여 가정에 전달하고 안부를 전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계농협·농협 장수군지부, 장계천 클린 플로깅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과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김준오)는 30일 환경정화를 위한 '장계천 클린 플로깅'을 실시했다.

장계농협 여성조직 농가주부모임, 고흥주부모임회원과 농협임직원 30여명은 환경보호와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클린 플로깅을 실시 도심 하천주변에 흩어져 있는 생활쓰레기 및 동물의 배설물 등을 수거하여 환경정화에 힘썼다.

곽점용 조합장은 "지역주민들의 깨끗한 산책로 이용으로 힐링과 즐거움을 얻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해마다 환경정화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주부모임, 고흥주부모임 회원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